

지문 목차

Day 1 _ 014P

[현대시] 2009.06 [20~23] '여승 / 못 위의 잠 / 결빙의 아버지'
[현대소설] 2011.09 [28~31] '눈이 오면'
[고전시가] 2016.11B [40~42] '어와 동량재를~ / 고공답주인가'

Day 2 _ 020P

[고전소설] 2015.11A [34~37] '소대성전'
[고전시가+수필] 2013.11 [46~50] '성산별곡 / 독자왕유희유오영 / 신록 예찬'
[현대소설] 2016.09B [39~41] '옛우물'

Day 3 _ 028P

[현대시] 2014.09B [38~40] '생명의 서 · 일장 / 농무'
[고전소설] 2011.09 [21~24] '김원전'
[현대소설] 2010.09 [40~43] '잔인한 도시'

Day 4 _ 034P

[현대시] 2010.06 [13~16] '발열 / 거문고 / 대설주의보'
[고전소설] 2013.06 [34~36] '임진록'
[현대소설] 2009.11 [20~23] '역사'

Day 5 _ 040P

[현대시] 2013.09 [27~30] '또 다른 고향 / 자화상 · 2 / 멀치'
[고전소설] 2012.11 [25~28] '호질'
[현대소설] 2015.06AB [34~38] '모래톱 이야기'

Day 6 _ 047P

[현대시] 2016.11AB [43~45] '아침 이미지 1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현대소설] 2013.09 [47~50] '역마'
[고전시가] 2015.11B [31~34] '관동별곡 / 유한라산기'

Day 7 _ 052P

[현대시+고전시가] 2009.11 [28~33] '님의 침묵 / 나뭇잎 하나 / 춘면곡'
[현대소설] 2015.11AB [38~42] '무영탑'
[고전소설] 2014.06A [41~43] '구운몽'

Day 8 _ 060P

[현대시] 2011.11 [13~16] '자화상 / 선제리 아낙네들 / 그 나무'
[현대소설] 2012.06 [25~28] '화산택이'
[고전시가] 2015.06B [43~45] '도산십이곡'

Day 9 _ 066P

[현대소설] 2008.09 [40~43] '날개'
[현대시+수필] 2015.11A [31~33] '조찬 / 파초'
[고전시가] 2014.09AB [38~40][31~33] '매화사'

Day 10 _ 072P

[현대소설] 2011.11 [40~43] '나상'
[현대시] 2015.11B [43~45] '고향 앞에서 / 낡은 집'
[고전소설] 2009.11 [47~50] '박씨전'

Day 11 _ 078P

[현대소설] 2009.06 [28~31] '신열'
[현대시] 2014예비B [40~4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성에꽃'
[고전시가] 2011.11 [27~31] '상춘곡 / 율리유곡 / 범희문희서도원림'

Day 12 _ 084P

[현대소설] 2014.06B [41~43] '만세전'
[고전소설] 2013.09 [20~23] '열녀춘향수절가'
[현대시+고전시가] 2010.11 [32~37] '승무 / 지리산 뽕새 / 면앙 정가'

Day 13 _ 091P

[현대시] 2014.06A [31~33] '접동새'
[고전소설] 2015.06B [39~42] '임경업전'
[현대소설] 2016.09A [39~42] '잔등'

Day 14 _ 098P

[현대시] 2015.09B [31~33] '모란이 피기까지는 / 고고'
[현대소설] 2014.09B [41~43] '광장'
[고전시가] 2011.06 [39~43] '두터비 파리를~ / 고공가 / 어부'

Day 15 _ 104P

[극문학] 2012.11 [43~45] '산허구리'
[현대시+고전시가] 2013.06 [13~18] '알 수 없어요 / 배를 매며 / 사미인곡'
[현대소설] 2014.11B [35~37] '소문의 벽'

Day 16 _ 110P

[고전소설] 2011.11 [47~50] '운영전'
[현대소설] 2010.06 [23~26] '외딴 방'
[현대소설] 2016.11A [31~33] '나무'

4. 이 교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 교재를 활용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점 전

1. 교재에 제시된 각 파트별 설명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고 정리한다.
2. 그 내용을 상기하며 뒤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을 재고’ 푼다. (추천 : 문제 수 × 1.4분) → 생략 가능
3. 채점을 하기 전에 ‘시간 제한 없이’ 모든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4. 문제를 다시 분석적으로 푼다. 이때 모든 선지에 대해 이 선지가 왜 맞는지, 틀린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채점 후

5. 해설지를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과 해설지의 설명을 비교한다.
6. 해설지를 덮은 뒤, 해설지의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섞어 본인 스스로 모든 풀이 과정을 설명해본다.
7. 이번 공부에서 배운 점을 정리한다.
8. 다음 지문을 학습할 때 그 내용들을 의식하며 공부한다.

굉장히 귀찮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교재의 내용을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간 들여 ‘생각’하는 공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조금하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해설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지에서 정말 같은 말만, 그리고 직관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반복할 것이니,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램의 독해 태도에 익숙해진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하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한 후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습’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날 공부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부족했던 지점들’을 모두 복습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공부에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복습이 끝났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의식하며 다음 지문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8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부족한 지점은 채우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교재는 “P.I.R.A.M 국어 8개년 기출문제집”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문학의 경우 독서에 비해 평가원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좋거든요. 다만 기출문제 학습이 처음이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P.I.R.A.M 국어 8개년 기출문제집”을 우선적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8개년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 교재로 기출을 보는 눈을 더 키우는 거예요. “P.I.R.A.M 국어 8개년 기출문제집” 이후 이 교재까지 공부하시면 ‘8개년(2017~2024) 전 지문을 포함한 17개년(2008~2024) 주요 지문’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욕심이 난다면 17개년 전 지문, 나아가 20개년 이상의 전 지문까지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나머지 지문들은 스스로 해설을 만들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교재의 해설지가 너무 과한 생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 교재를 끝낸 뒤에는 해설지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해 주시는 걸 학습의 목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공부법은 ‘습관화’입니다. 매일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해설지와 사고를 비교하는 걸 습관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 국어영역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5. 이 교재로 공부할 때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① 수강생 카페에 대해

→ 제 교재를 선택해주신 분들의 국어 공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교재 관련 자료 제공과 질문답변 등이 이루어집니다. 카페에 가입하신 후, 교재를 구매하셨다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자료 및 질문답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해당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piramgukeo>



② 시간 제한에 대해

→ 이 교재로 공부하실 때는 굳이 문제풀이 시간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문을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는 실력 확인 및 실전력 강화를 위해 약간의 시간을 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재고 풀어본 뒤에는, 1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꼭 충분한 시간을 써서 고민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지문을 읽을 때의, 그리고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확실하게 정리하신 뒤에 해설지를 보며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만 빠르게 썩 풀고 해설지를 보시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③ 해설과 실전의 괴리에 대해

→ 이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해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해설은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제 해설만큼 읽어내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고르는 과정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완전 똑같이 사고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상적인 상태로 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능날에도 그 ‘이상’에 그나마 가까운, 즉 답을 모두 골라내는 정도의 독해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이상적인 생각’에 다가가려고 최대한 노력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④ 생각합시다!

→ 이 교재의 핵심은,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머리가 터질 듯이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처음엔 ‘이걸 왜 강조하는 거지?’ 싶다가도, 생각하며 따라오면 결국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온전히 이해될 겁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⑤ 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 최근 한국의 실질문맹(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동영상, 토막글 같은 자극적 매체의 발달이 그 원인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3줄 요약’이라는 것이 유행할 정도이니,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읽기를 귀찮아하고, 이해하기를 게을러 한다면 국어 영역 점수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도 큰 불편을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이 교재에는 텍스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 텍스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글자를 읽고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 피램 국어 시리즈가 처음인데, 해설지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용어 및 내용을 통해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설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며칠만 적응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예 국어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니,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싶다면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를 이용해주세요.

- 문학 문제 풀이의 전제

수능 문학에서는 ‘독해력’과 ‘공감력’을 측정합니다. 문학 작품 역시 하나의 글이라는 점에서, 읽고 이해하는 ‘독해’의 과정을 거쳐야 답이 나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아가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결국 지문에 제시된 화자나 인물의 내면에 얼마나 잘 ‘공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야 합니다.

또한, 문학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기>를 통해 작품의 주제, 줄거리 등을 미리 체크하고 지문을 읽어주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보기>가 지문 내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굳이 먼저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 허용 가능성 평가

수능 문학의 선지 판단 과정에서는, ‘이거 틀린 거 아니야?’와 같은 생각보다는 ‘그래 맞다고 쳐 보고, 지문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단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의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니라 지문에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운문문학(수필 포함) 문제풀이

운문문학에서는 화자의 내면세계(정서)가 곧 주제입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 위주로 선지를 구성합니다. ‘주제’를 바탕으로, ‘독해력’을 발휘하며 지문의 내용을 대강 파악하고,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선지 판단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단,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수필의 경우에는 독서 지문을 읽듯이 정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필의 경우에도 핵심은 글쓴이의 내면세계, 즉 ‘주제’입니다.

- 산문문학 문제풀이

산문문학에서는 여러분의 ‘공감력’을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특정한 ‘시 · 공간적 배경’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부대끼는 모습을 보면서, 각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면세계(심리 · 생각)’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왜 그런 내면세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배경 묘사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인물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고, 외양 묘사는 인물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고전시가의 세계관

고전시가는 매우 단순한 세계관 아래에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입니다. 이에 ‘도덕적 삶에 대한 지향’, ‘임금에 대한 충정 표현’, ‘자연에 대한 지향’과 같은 주제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원칙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평가원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디테일하게 출제하는 ‘필수 고전시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P.I.R.A.M 국어 필수 고전시가” 교재를 참고하세요.

- 고전소설 클리셰

고전소설 역시 단순한 클리셰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영웅 소설’이나 ‘애정 소설’이 자주 등장하는데, 모두 ‘비정상적인 출생’, ‘주인공의 위기 극복’, ‘조력자의 도움’, ‘해피엔딩’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인물에게 공감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즉, 고전소설에서도 결국 핵심은 ‘인물에 대한 공감’입니다.

(해설편 p.097)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A]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리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어머니의 방일 테지만—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껌작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 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뽐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뵈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B]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적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

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껍적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릿배 통학생임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 동척 :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5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5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5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 (손에 권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룰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 이기 무신 소립니꺼?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신 말씀입니꺼? (건우 증조부, 손에 권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 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됐다 꼬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 찼다나.....

건우 할아버지 :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 서는 종이 조각을 배 주며 그랍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종을끼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룰 수는 없는 기다!

* E.L.S : 익스트림 롱 숏.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5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58 문맥상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59~6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B [43~45]

(해설편 p.104)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겹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A]

[B]

[C]

[D]

[E]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59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60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61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해설편 p.109)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겑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 거의 올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 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뺨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줄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김동리, 「역마」-

* 향라 적삼 :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옷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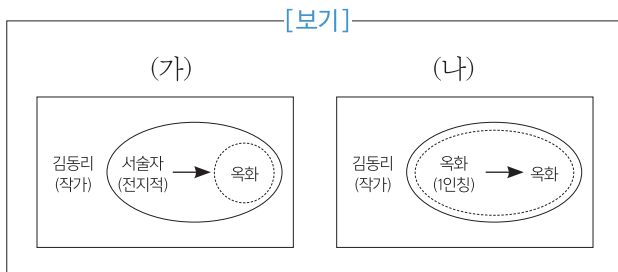
* 통정 :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명도 :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6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63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64 ㉠과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향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목소리’는 ‘뼈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 ④ ㉡의 ‘뼈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6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 ㉡.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 ② ㉠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놉듯던고

㉠ 노국(魯國) 조본 줄도 우리논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엇찌하야 적닷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힐가

원통골 7논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녀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논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여

[A] 외나모 써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이 버혀 내여

실 7티 플터이서 뵈 7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논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타 의논하계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하려니

산중을 미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하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논 이별을
원(怨)하논 듯

-정철, 「관동별곡」-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
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엮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 한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
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
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찔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기운도 없으니 은연
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
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
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
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B]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
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
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
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
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
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최익현, 「유한라산기」-

* 부상 : 해가 뜨는 동쪽 바다.

6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
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
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 ㉣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
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
를 강조하고 있다.

6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8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울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곳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뽀거니 어즈러이 구논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69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른바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DAY 2 [21~23]

2016.09B [39~41] 현대소설 '옛우물' ☆☆

〈보기〉 확인

[보기]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성년·결혼·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때 두 세계의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선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옛우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 탐색의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 지문은 '경계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중년 여성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지문입니다.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는 현대소설의 클리셰가 잘 나타나는 지문인 것 같죠? 주인공인 '중년 여성'의 자아 성찰에 공감할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독해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그해 봄날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이제는 충계를 오르는 일조차 잊어버린 치매 상태의 노모에게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벌어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화려르 흐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범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가 태어나던 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때의 설명을 통해 '나'가 봄날에 태어났다는 것, '나'의 어머니는 현재 치매 상태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네요. 나아가 출산에 대해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모'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나'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깨끗한 바가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마른 미역을 한 잎 걸쳐 안방 시렁에 엮어 삼신에게 바친 다음 할머니는 또다시 깨끗한 짚을 한 다발 안방으로 들여갔다. 사람도 짐승처럼 짚북데기 깔자리에서 아기를 낳나?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의문에 안방 쪽으로 가는 눈길이 자꾸 은밀하고 유심해졌다.

할머니는 아궁이가 미어지게 나무를 처넣어 부엌의 무쇠솥에 물을 끓였다. 저녁 내내 어둡고 웅숭깊은 부엌에는 설설 물 끓는 소리와 더운 김이 가득 서렸다. 특별히 누군가 말해 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조심스러운 쉬쉬함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게 마련이었다.

할머니는 언니에게, 해지기 전에 옛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 독을 채워 놓으라고 말했다. 머리카락 빠뜨리지 마라. 쓸데없이 수다 떨다 침 떨구지 마라. 부정 탄다. 할머니는 엄하게 덧붙였다.

'나'가 태어났던 일에 이어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주시고, '할머니'의 행동을 통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출산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막냇동생'이 태어난 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일생 중 '출생'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자아를 성찰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것이예요.

(중략)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사십오 년이란 무엇일까.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는 시간일뿐더러 이미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져 산하에 분분히 내리גיע도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창세기 이래 진화의 표본을 찾아 적도 밀 일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 제도로 갈 수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의 의술을 펼칠 수도 있었으리라.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도, 광야의 선지자도 될 수 있었으리라. 피는 꽃과 지는 잎의 섭리를 노래하는 근사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었을 테고 맨발로 춤추는 풀밭의 무희도 될 수 있었으리라. 질량 불변의 법칙과 영혼의 문제, 환생과 윤회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납과 쇠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도 될 수 있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나의 가야 할 바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사십오 년’이라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45살의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데, 돌이켜보면 자신의 인생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모두 ‘젊은 시절이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skip 가능 구간’이죠? 이걸 인지한 순간 아주 빠르게 읽어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두통과 임신 중의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읽고 티브이의 뉴스를 보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의 일간지를 동시에 구독해 읽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장을 보고 똑같은 거리와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 번 축탕에 가고 매주 목요일 재활 센터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의 물리 치료를 돕는 자원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름난 악단이나 연주자의 순회공연이 있을 때면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기도 한다.

주인공의 현재 생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방 도시에 살고 있고, 아들 · 남편과 함께 살고 있네요. 나머지 모든 내용 역시 ‘skip 가능 구간’의 일종으로, 바로 앞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창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냥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 뿐이에요.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옛그제, 벌써 한 주일 이상이나 화재가 계속되어 희귀 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는 티브이 뉴스에 비친 광경이 의식의 표면에 남긴 잔상 같은 것일 테고 더 먼저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 놓은, ‘도도’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도도가 무엇인가를 묻자 아들은 4백 년 전에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 멸종된 새였다고 말했었다.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관습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항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옛그제’부터 ‘갈라파고스’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 덕분에 알게 된 ‘도도’라는 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주목하던 ‘나’는 ‘도도’가 나는 기능을 잃은 것처럼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속은 그만큼 빈약한 상상력에 기대어 부박하다.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새로 보태어진 나이에 잠깐 발이 걸렸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례에나 장례에 꼭 같은 한 가지 옷으로 각각 알맞은 역할을 연출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마늘과 생강이 어우러져 내는 맛을 알고 행주와 걸레의 질서를 사랑하지만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정희, 「옛우물」-

어려운 이야기들의 연속이지만, ‘나’는 이러한 ‘도태’에 대해 별반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의 일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질서’와 ‘무질서’ 모두를 지향하는 존재거든요.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거나 무인도에 가거나 하는 꿈같은 이야기 속 주인공은 못 되어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년’ 시기의 자신의 모습에 나름대로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자아 성찰의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하네요. 삶의 순환 과정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8%	3%	2%	3%

21 읽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①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너무 주관적인데?
해설	객관적 진술이요? 본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객관적 진술이 되기 어렵겠죠.

②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이야기 내부 서술자, 즉 '나'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는 것. 이 지문의 내용이자 주제 그 자체입니다.

③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갈등을 왜 해결해.
해설	(중략) 이후 부분을 근거로 하면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것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등의 해결'이요? 애초에 이 지문은 어떠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 뿐이에요.

④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딱히 반감을 가지는 인물은 없는 것 같은데.
해설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이라는 심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가 있었다면 왜 그런 심리를 보이는지 등을 생각하며 공감하려 했을 텐데 말이에요.

⑤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대적 분위기와는 상관 없는 지문이지.
해설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 애초에 이 지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선지죠. 이 지문은 '자신의 이야기'가 핵심이기에, 시대적 분위기 같은 내용이 답이 될 수는 없겠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9%	2%	3%	4%	12%

22 [도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도도'는 '나는 기능'을 상실하여 멸종한 새로, '나'가 '젊은 시절'의 모습을 잃고 '도태'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끌어오는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①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와 스스로를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로 여겼던 주인공을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에요.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이지요? '도도'뿐만 아니라 이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주인공인 '나'의 성찰에 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지문의 주제니까요!

② 주인공의 아들이 자기 물건들에 '도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멸종된 종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들의 미래가 왜 불행해.
해설	아들이 '도도'라는 이름을 물건들에 붙여놓은 건 맞는데, 아들의 불행한 미래요? 애초에 이 지문은 '나'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의 미래에 대한 내용은 나올 필요가 없겠죠. 지문 속에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도 하구요.

③ 주인공이 '도도'에 대해 '멸종된 새'로서 진화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알려 주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학을 언제 탐구했어.
해설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④ ‘도도’를 통해 바다 건너 외딴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연상하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도도’는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단절된 인간관계?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잘 지낸다고 했잖아.
해설	<p>‘갈라파고스’의 ‘희귀 생물’에 대한 티브이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도도’라는 새에 대해 들었다는 점에서, ‘도도’를 통해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연상한다는 건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하지만 ‘단절된 인간관계’를 환기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근거들이 넘쳐나죠? ‘나’는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재활 센터’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단절된 인간관계’는 절대 허용할 수 없죠.</p>

- ⑤ ‘도도’가 인간 앞에 ‘항거’하지 못하고 희생되어 ‘전설 속’의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두려움을 느끼는 현실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도는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것이지.
해설	<p>‘도도’는 ‘멸종’한 ‘젊은 한 시절’을 상징합니다. 이 ‘젊은 한 시절’은 관습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항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즉, ‘도도=젊은 한 시절=두려움과 항거’이기 때문에, ‘관습과 제도’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이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p> <p>혹은 ‘도도=멸종한 새’이므로, 현재 존재하는 ‘관습과 제도’를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해결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든 결국 ‘독해’가 핵심이었네요.</p>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5%	5%	6%	14%	10%

23 <보기>를 참고할 때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①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 센터 등에 오가면 서도 밤 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학교 · 재활 센터 · 밤 외출은 전부 일상의 이야기잖아. 경계 상황을 의미하지 않지.
해설	<p><보기>에서 제시한 새로운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에서는 ‘경계 상황’을 ‘일상과 상상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상황’으로 정의했어요. 지문에 대응하면 ‘갈라파고스’ 등을 떠올리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p> <p>하지만 ‘학교 · 재활 센터’를 오가고 공연을 보기 위해 ‘밤 외출’을 하는 행위는 모두 ‘일상’에서의 행동들입니다. ‘상상의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이를 통해 ‘경계 상황’이라는 말을 허용하기는 어렵죠. ‘밤 외출’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만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학생들을 틀리게 하는 선지였습니다. 단어의 어감이 아닌, ‘독해’의 과정을 통해 추출한 ‘맥락상 의미’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해요.</p>

- ② 죽음을 물과 불과 바람과 먼지로 산하에 흩어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주인공의 생각에서, 생명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죽어서 자연으로 흩어지는 건 순환 원리라고 볼 수 있지.
해설	지문에서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져 내린다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하면 <보기>에서 언급한 ‘자연의 순환 원리’라는 말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내리는 것이니까요.

- ③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장면을 주인공이 떠올리는 것에서, 출생이라는 생의 첫 과정에 주목하며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태어나던 때를 떠올리는 건 출생에 주목하는 것이지.
해설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에 주목하고 있던 것 맞고, 이런 생의 첫 과정에 주목하여 정체성을 탐색하려고 한다는 것도 허용할 수 있겠네요. ‘정체성 탐색’은 이 지문의 주제니까요.

- ④ 한 사람의 생애에서 사십오 년의 의미를 묻는 주인공이 아프리카나 광야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는 다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프리카나 광야는 다른 세계지.
해설	주인공은 지금 ‘작은 도시’라는 공간 속에 있어요. 따라서 아프리카, 광야 등은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이곳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는 건 이 지문의 주제이므로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⑤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질서, 무질서 둘 다 언급했으니 맞지.
해설	‘질서’가 있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언젠 ‘무질서’ 속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문의 주제가 ‘정체성 탐색’이므로, ‘질서’와 ‘무질서’를 오갈 수 있다는 이야기 역시 ‘정체성 탐색’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③ **skip 가능 구간** : 인물의 똑같은 내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뻔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간은 조금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④ **현대소설 클리셰** : 현대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대소설의 클리셰로 작용하니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 지문 내용 총정리 |

‘나’라는 주인공의 내면에 주목하는 전형적인 현대소설이었네요. 이렇게 인물의 ‘심리’가 중심이 되는 작품은 필연적으로 현학적인 수사들이 덧붙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심리’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고 빠르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평가원은 여러분이 ‘공감’하고 ‘독해’할 수 있는 지를 궁금해하지, 문학적인 표현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DAY 3 [24~26]

2014.09B [38~40] 현대시 '생명의 서 · 일장 / 농무' ☆☆☆

<보기> 독해

[보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나)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보여 준다는 주제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당시 힘들었던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이러한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농무'를 추면서 억지로라도 활력과 신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는 자연스럽게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다는 주제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암울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나)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
을 쪼이리라

-유치환, 「생명의 서 · 일장(一章)」-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보기>가 없으니, 화자의 내면세계라는 주제 중심으로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자는 '삶의 애증'을 느끼면서 '생명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지향점에 가면 '삶의 애증' 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으로 가면 화자는 '나'와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의미하겠죠? 화자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세계와 대면하여 '삶의 애증'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만나지 못하면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백골'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나'라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만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직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곧 이 작품의 주제이니깐요.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A]

[B]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C]

-신경림, 「농무」-

〈보기〉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농촌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한 ‘우리’의 내면세계가 드러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꿩과리를 앞장세워 ‘농무’를 추는 모습인데, 중간중간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농촌 사회의 피폐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즐겁다는 것보다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의 암울함’을 심화하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한 ‘농무’를 추면서도 ‘현실의 암울함’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느껴지시면 완벽하게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3%	3%	77%	13%

2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계절?
해설	(가)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어가 있었다면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현재 어떤 계절인지 느낌이 왔을 거예요.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대상의 이면?
해설	일단 (나)의 경우, ‘보름달은 밝아’라는 표현을 통해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히 낮으로 시간이 변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죠? 나아가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는 내용 역시 작품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너무 헛소리네요.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서 청각적 심상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해설	일단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거나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나)를 읽는 과정에서 ‘꿩과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상상했던 기억이 있죠? 따라서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했다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가)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나)에서는 ‘~고 ~꺼나’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 구조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면, 그 리듬감이 계속 떠오르며 여운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해설	(가)의 경우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시적 공간이 현재 화자가 경험하는 공간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탈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지향점에서 ‘나’를 만나려는 의지를 드러낼 뿐, 그곳을 ‘이상향’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향’이 허용 되려면 그곳을 ‘최종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근거가 필요해요! (가)의 화자는 ‘나’를 만나는 수단으로 ‘아라비아의 사막’을 지향할 뿐이지, 그것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에서는 아예 ‘시적 공간의 탈속성’, ‘이상향에 대한 동경’ 등을 확인할 수 없으니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나)에서는 농촌이라는 현실적 공간에서 한탄하는 내면세계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	50%	8%	30%

25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나'는 (가)의 화자가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직면하고자 하는 내면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성찰'에 대한 의지와 역어서 '나'와 ㉠~㉣의 관련성을 판단해봅시다.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병든 나무는 화자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지.
해설	화자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병든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와 대비되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였죠?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조건에서 '나'를 만난다고 했지.
해설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아라비아의 사막'은 아무 것도 없이 적막한 '영겁의 허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에서 '나'를 만나겠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는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누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열렬한 고독 가운데에서 '나'와 대면할 수 있다며.
해설	'열렬한 고독'은 단어 그대로 절대적 고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렇게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올로 서서 '나'와 대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가운데'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며.
해설	화자는 '나'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시'와 '본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과 '원시적 생명력' 모두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
골을 쪼이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일단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번 선지처럼 확실한 정답 선지도 찾은 상태이니깐요.

<p>조금 더 엄밀하게 해결해봅시다. 결국 핵심은 ‘독해’예요. 화자는 ‘나’를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가진 ‘나의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회한 없는 백골’을 쪼아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때 화자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했을 때 백골을 쪼아는 것은, 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회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때의 죽음에 대해 ‘회한 없’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나’를 통해 ‘원시의 본연한 자태’라는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겠다는 말이기예, 반드시 그 ‘생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p> <p>문학 역시 국어영역의 일부이므로, 결국 핵심은 ‘독해력’입니다. 이 포인트를 잊지 맙시다.</p>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4%	79%	3%	11%

2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해설	[A]는 화자를 비롯한 ‘우리’는 ‘농무’를 끝내고 ‘학교 앞 소줏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는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활력을 얻기 위해 추는 ‘농무’를 통해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을 허용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냥 즐거운 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네.
해설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모두 흥겨운 ‘농무’를 보면서 마냥 즐거워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처럼, 화자는 ‘농무’를 단순히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너무 힘겨우니까요.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어딴냐.
해설	[C]에서 화자는 ‘농무’를 추면서 ‘신명’을 느낍니다. 주제를 고려할 때, 이때의 ‘신명’은 정말 즐겁다는 표현이 아닌 ‘현실의 암울함’을 심화하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초에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 ④ ①과 ②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p>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②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p>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하고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 치는 것 같으면 떠날 수밖에 없지.
해설	①과 ②를 종합하면, 농촌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면서 ‘원통’한 감정만 느껴지는, 그리고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치는 것으로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당시의 농민들은 이렇게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고자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⑤ ③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p>③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p>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p>㉠에서 화자는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지,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지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죠. 주제를 고려하면, 이 물음은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날을 낙관하지 못해 춤이나 출까 하며 던지는 자조적 물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조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내면세계를 자조하는 것은 이 지문의 주제 그 자체니까요. 이 해석을 미리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조’의 의미와 주제를 바탕으로 허용할 수는 있어야 해요.</p>
----	---

현대시 독해 연습

(가)	<p>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p>
-----	---

어떤 상황이 가정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은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는 삶의 애증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화자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때 ‘나는 가자’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나는 간다’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령형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한 곳은 ‘아라비아의 사막’입니다. 이곳이 화자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p>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p> <p>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p> <p>*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p>

‘거기’는 당연히 ‘아라비아의 사막’이겠죠? ‘백일(하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쬘고,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극한의 공간.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가겠다고 ‘나’는 선언한 것이에요. 아니 힘든 상황에서 ‘지향점’으로 삼는 곳이 ‘고민 · 방황’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 조금은 납득이 어렵기도 합니다.

<p>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웃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p>
--

‘허적’,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열렬한 고독’ 속에서 화자는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나’는 진정한 나, 본질적 자아 같은 것이 되겠죠? 결국 화자가 힘든 상황에서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고자 한 까닭은 ‘진정한 나’와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을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네요.

<p>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 을 쪼이리라</p>
--

화자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 즉 ‘진정한(근원적인) 나’를 다시 배우지 못하면 차라리 ‘백골’을 쪼이겠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사구’(모래 언덕)에 자신의 ‘백골’(시체가 썩고 남은 뼈)을 새들이 쪼아 먹게끔 할 것이고, 이때는 ‘회한’(후회)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까지 읽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나’와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는 말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진정한 나’, 즉 자신의 내면세계와의 만남을 갈구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단어로 도배된 것 같은 시도 ‘일상 언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읽어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	<p>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p>
-----	--

징이 울리고 막이 내리고, 가설 무대가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어떤 공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운동장은 텅비었는데, 분이 얼룩진 ‘우리’(아마 공연자들이겠죠?)는 학교 앞 소줏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분을 하고 징을 치며 학교 운동장

에서 공연을 하던 ‘우리’가 공연이 끝나고 뒷풀이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만 보면 되게 즐거울 것 같은데, 화자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연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든 것일까요? 어쨌든 화자의 내면세계가 고통으로 얼룩져있다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회식이 끝났는지,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아마 아이들이겠죠?)밖에 없고, 처녀애들은 담벽에서 철없이 킬킬대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고서 철없다고 하는 걸 보니, 화자가 진짜 힘들기는 많이 힘든 것 같네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아무튼 보름달이 밝게 뜬 밤에, 걱정이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서림이처럼 해해대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연하고 사는 게 힘든 것인 줄 알았더니, 화자는 이 산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네요.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 지금껏 원통하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내면세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신경림, 「농무」-

구체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비료 값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산속 농촌 마을의 현실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도 고통을 겪는 것이었네요. 현실이 많이 고통스러운지, 농사는 그냥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자고 하면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으로 오면서 공연을 이어가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점점 신명이 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흥겹게 공연을 하려고 해도 가슴속 한켠에서 올라오는 답답함은 지워지지 않겠죠? 이걸 잊어보려고 날나리도 불어보고 고갯짓도 하고 어깨도 흔들고 해볼까 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려고 해도 쉽지는 않겠죠. 내면세계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하니까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 지문 내용 총정리 |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품들이 출제되어 꽤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겠지만, 모든 선지를 완벽하게 납득하며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선지가 명쾌하게 뚫리는지 점검해보도록 합시다.